

완득이(2008, 김여령, 창비) 서평

이영희*

“어떤 새끼가 웃었어? 지하철에서 채칼 파는 게 어때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장산데 왜 웃어? 몸뚱이 멀쩡하면서 집에서 치노는 놈들보다 백배는 나은 사람들이야, 새끼들아!” p.31

“여태 세상 뒤에 숨어 있던 완득이가, 운동하면서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게 놔두세요.” p.171

이 작품 속에는 생각을 깨우는 대화들이 자주 언급된다. 그리고 자칫 소외된 계층들을 다루다보면 어둡고 비참하게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감동과 재미 그리고 사회를 향해 통쾌한 펀치를 날려준다. 이것이 작가의 능력이자 대중들의 인식 전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소설의 힘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이미지, 이주노동자의 삶이 짧지만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소설 「완득이」는 제1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김여령의 작품이다. 김여령은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마해송문학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탄탄한 필력을 가진 아동문학가로서 인정받았고,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 방황했던 작가의 청소년기를 작품에 반영하며 17살의 완득이를 성장시켰다.

소설 속 인물들은 17살의 고등학교 1학년 완득이를 주인공으로, 흠뻑인 남편이 아버지, 가출한 베트남 어머니, 비혈연 관계이지만 삼촌이 되어버린 말

* 한국복지사이버대, 사회복지학, yh7085@hanmail.net

더듬이 심한 남민구, 선생님이지만 체벌과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 담임선생님 이동주, 시도 때도 없이 이동주와 마찰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옆집아저씨가 등장한다. 완득이는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점만 거론되면 싸움꾼으로 돌변한다. 사사건건 간섭하며 괴롭히는 담임선생님 이동주를 ‘똥주’로 부르며 하나님께 그를 죽여 달라고 기도를 한다. ‘경제사정 곤란’이라는 사유로 완득이네를 기초생활수급가구로 만들며, 수급품 햇반을 빼앗아 먹는 ‘똥주’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보다는 사회운동가에 가깝다. 부잣집 아들이지만 외국인의 노동착취로 부를 축적하는 아버지와 악덕 고용주의 비리를 고발하며 사회의 약자 편에 서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또한 완득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베트남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얽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똥주’는 완득이가 햇살 가득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은 완득이의 다짐에서 발견된다.

‘왜 숨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은 너무 오래 숨어 있어서 두렵기 시작했는데, 그저 숨는 것밖에 몰라 계속 숨어 있었다. 그런 나를 똥주가 찾아냈다. …〈중략〉… 흘러보낸 내 하루들, 대단한 거 하나 없는 내 인생, 그렇게 대충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작은 하루가 모여 큰 하루가 된다.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딱 찬 하루하루를 꿰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p.233

이 소설은 이유 있는 청소년들의 반항과 경직되어 있는 학교생활의 모습을 다루며 청소년들의 일상을 다루기도 했지만 실제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삶의 공동체에서 조차 소외와 무시를 당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체류 상황들을 간단하지만 복합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작가는 표지에 복서의 이미지가 없었다면 서명만으로는 「완득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출발점부터 우리사회에 미처 정착되지 않은 다문화사회의 정체성을 지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작가는 사회에 확산된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그로 인해 상처 받는 다문화가정의 갈등을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온 하녀 취

급하는 게 싫었다.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들 뒷일이나 해주는 사람으로 알려. 가는 모습 봤는데 못 잡았다.”라는 난장이 춤꾼인 완득이 아버지의 고백에서 분명한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 「완득이」가 출판될 시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인색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주여성들의 자살 등 피해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었고 그 배우자인 한국남성은 국내에서는 결혼조건을 갖추지 못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 조건이 건강하지 않은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다문화가정은 사회적 약자로, 소외층으로, 국가적 도움과 개입이 필요한 위치에 자동적으로 놓이게 된 것이다. 청소년 독자들이 그런 상황을 고려하며 「완득이」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이 발간된 시점과 지금은 다문화사회에 대해서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수동적이기만 했던 이주여성들이 점차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정치적·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이나 농업 경영에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가 하면 국가는 다문화가정을 이중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부각시키며 사회통합 위주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득이」는 다문화시대 소수자들을 다룬 작품으로 읽어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다문화가정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자칫 다문화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을 다룬 작품들이 연이어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을 전문가의 대답이나 토론을 통해서보다 다큐멘터리 ‘SICKO’나 영화 ‘존큐’로 이해하면서 치밀한 준비 없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처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 역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소설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이 ‘다름’과 ‘동등’이라는 다문화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